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8 색채와 성향

검은색과 성격

●색채의 선호도

럭키쉬(Luckiesch, Mathew W)와 모스(Moss, F. K.)는 그의 저서인 시각의 과학(The Science of Seeing, Oxford, England : Van Nostrand Co., Inc.)에서 미국 성인들에게 작은 색종이로 피검사자들의 기호 순서를 6가지로 분석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색채의 배색인데 노란색과 검은색,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초록색, 노란색과 빨간색을 가장 싫어한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범하며, 세속적이고, 관습에 순응적이며, 예의가 바르고 당당하다. 이 색은 의료 심리학자에게 의미하는 것(침윤)과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위엄)이 전혀 다르다.

검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위엄과 권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협조가 부족하고,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특정 관념과 원리에 집착하기 쉽고, 적개심을 타인에게 발산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하지 못하거나 명랑한 기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검은색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절망하거나 몹시 우울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며, 마음속 자기 비하의 자존심이 갈등을 일으키

<상대방이 좋아하는 색깔과 당신이 좋아하는 색깔>

당신 상대방	빨강
검정	아주 비슷한 두 사람이다. 당신의 정열은 너무 파격적이지 않으며, 또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막아줄 것이다.★★★
갈색	행동하기 전에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비판하면 계속 이어지기가 힘들다.★★
보라	속박받기 싫어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의 당신은 정신없이 끌려가기 마련이다. 두 사람의 정열이 상승효과를 거두어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
파랑	감격하고 있는 당신의 기분을 한 마디로 무시해 버리는 상대방. 상대방의 합리성을 당신이 선뜻 받아들이다면 잘 이루어지겠다.★★
분홍	때에 따라 정신없이 소란을 피우는 당신을 슬며시 억누르는 상대방. 아주 믿지는 않지만, 당신의 마음속은 웬지 불안투성이다.★★
노랑	서로의 취미가 맞으면 의기 투합된다. 그러나 취미가 맞지 않으면 거의 무시는 상대방. 종종 당신의 감정이 걸들지도 모른다.★★★
초록	호인인 당신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만, 상대방은 당신을 특별히 신경 쓰는 것 같지 않다. 당신 쪽이 점점 시들해져 버린다.★
빨강	심한 다툼을 해도 다음 날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두 사람이다. 당신은 마음씨가 나쁘지는 않지만, 책임감도 적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의지하지 않는 편이 좋다.★★★

(★표는 친밀도를 나타낸다.)
문화예술 기획자/ 박현일(철학박사 미학전공)

고 있음을 의미한다. 검정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여성은 남성에 대한 의타심이 매우 강한 심리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검은색을 선택한 사람은 뜻하지 않게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불쾌한 얘기를 듣거나, 평소 애민했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되며, 그 원인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가지게 된 상태이다. 이 의식은 불편, 의혹, 불안, 공포, 죽음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색깔을 선택하는 그 자체가 건전한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이 색을 선택한 사람은 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치과외과를 신용할 수 없는 여성, 자신의 변호사에게 불신감을 품고 있는 노부인이다. 특히 최근에 이 색깔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

쩍 느는 추세는 사소한 것에 남을 신용할 수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느낌을 준다. 검정을 좋아하는 남성과 여성은 스스로 너무 강해서 각각의 파트너가 필요 없음을 의미한다.

좋아하는 색깔로 알아보는 직업에 있어서, 검은색은 권력을 가지는 일과 자신의 콤플렉스를 숨길 수 있는 일 등이 어울린다. 예를 들면, 수석 디자이너나 학자 그리고 연구자, 작가, 격투기 선수들이다.

●성격진단법

1948년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막스 루셔(Max Luscher)는 색채 테스트를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했으며, 그는 8가지 색채와 감정 영역을 관련시켰다. 검은색은 부정과 공격성을 상징하고, 이 색은 완전히 거부된 감정들을 나타낸다.

마쓰오카(松岡)은 사람의 색채 성격 진단법을 연구하였는데, 검정 또는 자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협조성이 없고, 고독감에 빠지기 쉽다. 특정 관념과 원리에 집착하기 쉽고, 비하와 자존심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다음 달부터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인천까지 가지 않아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일본 나라타 등을 갈 수 있게 된다. 무안국제공항은 오는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개국 16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한다. 항공사별 운항 시기 차이가 있었으나, 지난해 동절기보다 2개국 4개 노선이 늘어난 규모다. 새롭게 추가된 노선은 일본 나라타-나가사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루앙프라방, 중국 항저우, 베트남 푸꾸옥, 필리핀 마닐라 등이다.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 청원에 서명하면 매일 1명씩 100만달러를 주겠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난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이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확산됐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건 것. 미국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대표행위 규정하고 있어 위법 행위로 비추질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주는 것뿐, 불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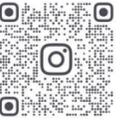


‘뽀짝뽀짝’ 광주 북구 신용동에는 특별한 마을 보안관이 있다. 바로 ‘신용동 반려견 순찰대’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옹골찬 반려견 순찰대의 모습에 가을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이목이 주목됐다. 이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귀여운 반려견 순찰대는 신용동 안전마을협의회가 지난 6월 마을 방범활동을 위해 발족했다.



지난 21일 광주 일대에서 KIA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의 ‘2024 KBO 한국시리즈’ 1차전 응원전이 열리는 등 시민들이 타이거즈의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1시간 시적이 지연됐지만, 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와 대규모 야외 응원전이 펼쳐진 김대중컨벤션센터 및 일대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경기는 오후 10시9분 기준 강우로 인해 서스펜디드가 선언됐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